

# 統一新羅時代 佛教建築의 變化\*

金聖雨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 1. 統一新羅 佛教建築의 정체성(序)

우리나라 佛教建築史에서 統一新羅時代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역사적 해석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三國이 통일될 때까지 대단한 활력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하여오던 불교건축의 흐름이 통일을 기점으로 하여 완전히 다른 흐름의 양상을 보여준다.

다양했던 배치계획의 변화들이 雙塔형식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한가지 형식으로 고정된다. 그 형식상의 고정이 統一新羅시대 전체에 걸쳐서 정착되어 있어서 다른 양식이 나타나지를 않는다. 굳이 다른 예를 들자면 高仙寺址 정도의 변칙적인 예가 하나 있을 뿐이다. 물론 禪宗계열의 山地가람이 있으나 이것은 워낙이 三國時代의 정형적 흐름에서 벗어난 형식으로서 같은 형식의 연속적 변화라고 볼 수 없다.

三國時代에는 짧은 기간 사이에 여러 다양한 배치형식이 서로 교차되며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정체적 현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그 정체성이 統一新羅시대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

다는 것은 그 역사적 해석을 어렵게 하는 바가 없지 않다.

三國이 경쟁적으로 共存하던 시기에는 당연히 건축의 형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統一新羅시대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하는 견해는 어느정도 납득이 간다. 하지만 古代 佛教建築의 전체적 변화과정에 비추어 볼 때 단 하나의 형식이 수백년간 계속된 한 王朝 전체에 걸쳐 획일적이고 고정되게 적용되었던 사실은 당연하기보다는 희귀한 예이다.

이러한 경향이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에서 공통적이었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국제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日本의 7세기 후반부터의 불교건축에서 미루어서 알 수 있듯이 7세기부터 9세기까지, 즉 中國 唐代에 해당하는 기간의 불교건축은 정체적이거나 침체적이지 않고 대단히 약진적인 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中國 唐代의 佛教遺蹟은 많지 않으나 당시 日本의 예가 中國의 경우를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향과 統一新羅의 상황은 대조적으로 비교가 된다. 統一新羅시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었던 境內的 雙塔제도가 日本에서는 여러가지 형식 중의 한 형식과 같이 나타나며 그것도 한국에서와 같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日本의

\* 이 논문은 1991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된 논문임.

에서 볼때 境内의 雙塔제도는 統一新羅에서와 같이 장기간 지속되는 고정적 형식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적인 형식임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統一新羅시대의 佛寺는 前代인 三國時代와 비교해 볼 때 규모면에서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三國統一후의 國力は 증강되었을 텐데도 佛敎國家로서의 寺刹의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나타난 현상이다. 같은 시기의 日本에서의 佛寺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거쳐서 객관적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 평가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하는 단순한 차원을 떠나서 당시의 불교건축이 어떠한 시대정신과 사회상황아래서 이루어진 결과였는가하는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本稿는 그러한 검토를 시도하려는 것은 아니다. 本稿는 統一新羅시대의 불교건축에 대한 여건과 배경에 대한 검토 대신에 불교건축 자체에 대한 검토를 목표로 한다. 그것은 統一新羅시대의 불교건축이 간단히 雙塔형식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그 전부를 규정해서 끝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이다.

역사적 흐름이 갖는 공통적 경향성에 대해서 하나의 이름을 붙여서 묶어버림으로서 역사적 해석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공통된 형식으로 나타날 지라도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며 변화의 흐름을 만드는 동기 자체가 죽어버렸거나 약화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표면적 변화가 약하다는 것은 내재적 동기가 축적되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정체적 과정은 도약적 변화이전에 거칠 수밖에 없는 단계적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정체적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체적이지만은 않은 숨어 있는 변화의 동기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숨어 있는 동기는 사실상 변화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일관되게 관통

하고 있는 생명력과 같은 것으로서 정체적 현상이란 그 드러남의 과정이 길때를 말할 뿐 숨은 동기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흐름의 연속에 해당할 것이다.

本稿는 統一新羅시대의 정체적인 것처럼 보이는 불교건축의 흐름 속에서 정체적이지만은 않은 어떤 흐름의 동기, 또는 변화의 일관된 흔적을 찾을 수 있겠는가를 규명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동시에 건축역사를 서술하는 입장이 어떤 외형적 유형의 이름으로 묶어서 정리해 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내재적인 흐름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 간접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一見 정체적인 것처럼 보이는 統一新羅시대의 불교건축의 내부적인 흐름의 구조를 좀더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끔해보자는 것이다.

## 2. 值數比較方法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점을 근거로 분석을 하는 것에 비교하여 볼때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미세한 현상들을 분석하는 것은 더 어렵기도 하려니와 그 분석방법이 달라야 한다. 외형상 같은 배치형식일때에는 형식자체가 다른 경우보다 그 차이점 또한 미묘하고 미세한 단계에 속해 있으므로 그 미세한 차이점들을 들추어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고 그 들추어진 미세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이 雙塔가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형식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러한 미세한 차이점들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차이점들을 만드는 배경자체는 미세한 것이 아니며 일시적인 것도 아니다. 그 미세한 차이점들이 어떠한 일관된 경향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경향성이 고대의 불교건축을 형성시켜온 전체적인 흐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가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그 미세한 차이점들을 다루려면 우선 그 차이점들 자체가 분명히 찾아져야 하고 그 찾아진 차이점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내재하고 있는 경향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배치계

획이 동일한 형식일 때 작은 차이점들을 찾아내는 방법은 배치계획을 결정짓는 각 중요부분의 치수를 비교하여 그 변화의 경향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한편 그 치수들이 각각의 寺址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결과만이 아니고 상대적인 객관성을 갖는 경향인가하는 점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그 치수들이 각 배치계획에서 갖는 상대적 비교수치를 검토하여야만 한다. 예를들면 회랑 규모에 대한 금당크기의 변화와 같은 상대적 변화의 정도를 파악하여 절대치수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배치계획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치수의 종류가 분명할 필요가 있다. 회랑의 치수가 무엇보다 기본이 되며 그 다음에는 회랑 내부의 塔과 金堂의 규모변화가 주요 치수비교의 내용이 되어야함은 물론이다. 本稿에서의 치수의 종류와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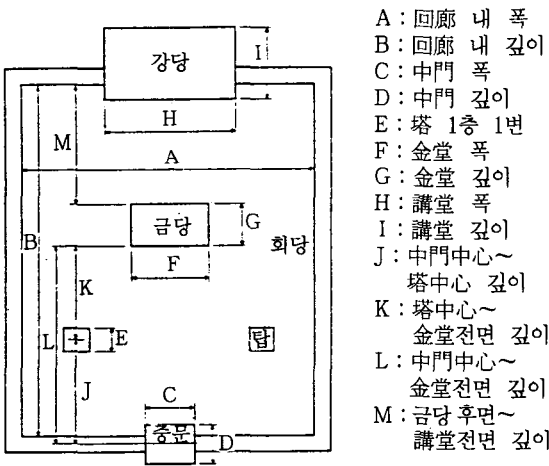


그림1 측정치수의 종류와 위치

여기에서 “폭”이라함은 모든 구조물의 東西(또는 좌우)間的 치수를 말하며 “깊이”라함은 南北(또는 상하)間的 치수를 말한다. 建物址의 치수는 네 모서리 礎石의 중심거리로 하였다. 회랑의 치수는 편의상 외측의 기둥이 아닌 내측기둥 초석의 중심간거리로 하였다. 이것은 회랑 내부의 공간 크기를 규정하는데 회랑자체의 폭은 배제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寺址의 깊이측정은 중문의 중심에서 시작하였

다. 회랑내부공간의 조망이 가능해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구조물사이의 외부공간크기의 측정에 있어서는 건물의 외곽선 사이를 측정하되 塔의 경우에서만은 塔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였다. 건물과 달리 塔은 그 자체가 갖는 수직 中心軸이 경험상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외부공간은 크게 金堂을 중심으로 前面과 後面 공간으로 나누었고 塔이 있는 前面공간은 다시 兩分하여 中門에서 塔까지 그리고 塔에서 金堂까지의 공간으로 나누었다. 塔의 치수에 있어서는 木塔址의 경우는 礎石을 중심으로한 1층의 크기를, 石塔에서는 一層 몸체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이것은 구조체로서의 塔이 땅과 만나는 곳으로서 塔을 인식하는 最低部로서의 공통성을 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치수는 전부 唐尺으로 통일하였다. 이것은 많은 경우의 其調査자료가 唐尺인 경우가 많고 統一新羅시대의 使用尺으로 치수화하는 것도 뜻이있기 때문이다. 唐尺이 아닌 수치는 측정후 같은 비례의 唐尺으로 환원하였다.

### 3. 調査對象寺址

이러한 방법으로 상호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寺址의 선정이 문제가 된다. 우선 寺址가 정실측에 의하여 각 부위의 치수가 나타나고 배치계획의 전모가 분명하게 드러나야만 비교가 가능해진다. 統一新羅시대에 지어진 사찰의 수는 많으나 정실측에 의하여 배치계획의 각 부분치수가 확인될 수 있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다. 雙塔을 갖춘 寺址는 木塔유구를 가진 四天王寺址와 望德寺址가 있고 石塔유구를 가진 感恩寺址, 千軍里寺址, 佛國寺가 있다. 이상의 5개의 寺址는 그 배치계획이 어느정도 드러나 있어서 실측이 가능했거나 이미 조사가 되어서 치수가 확인이 된 경우이다.

그 이외에 寺址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遺址에서는 石塔 또는 그 일부가 남아 있어서 절터이었던 것은 알 수 있으나 배치계획의 전모는 밝혀지지 않은 경우이다. 南山里寺址, 獐

項里寺址, 遠願寺址, 崇福寺址, 茸長寺址, 末方里寺址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茸長寺址와 獐項里寺址, 遠願寺址는 현재 지형여건으로 보아서는 정상적인 雙塔가람을 형성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南山里寺址와 崇福寺址는 정상적인 쌍탑가람을 형성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치수비교가 가능할 만큼의 자료채취가 불가능하다. 末方里寺址의 경우 추정복원된 배치도와 치수가 있으나 당시 확인된 金堂址와 塔址의 일부에 의한 추정복원이며 나머지 부분은 정확한 근거에 의한 복원이 아니어서 신빙도가 떨어진다.<sup>1)</sup> 그 자료만을 갖고 본 연구의 분석에서 요구하는 수치들을 정확하게 구하기가 어려우며 절터가 있는 현지에서 현재상태로는 실측할만한 유구가 남아 있지 않아 결국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 이외에도 雙塔의 흔적을 갖고 있는 寺址들이 전국에 더 산재해 있다. 그 중에는 山地에 위치한 경우도 있고 石塔등의 石材가 제위치에서 벗어난 경우 등 모두 본 연구의 목적에서 벗어나므로 언급의 필요가 없다.

결국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부합하는 寺址는 앞서 언급한 5개의 寺址이다. 5개라는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방법이 치수의 상호비교인만큼 조사대상사례의 수가 너무 많아도 진행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정밀비교를 위해서는 오히려 적당한 숫자라고 생각된다. 사례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사례들의 시간대상의 분포상황이다. 분포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변화의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5개의 寺址 중에 望德寺, 四天王寺, 그리고 感恩寺가 비교적 연대가 확실한 편이며 7세기 후반에 해당된다.

1) 末方里寺址에 대한 조사는 勝島玄治郎에 의해 1929년에 이루어 졌었다. 이 자료가 「朝鮮建築史論」 190-196쪽에 실려있다. 이어서 勝島氏의 저술인 「韓의 建築文化」(李光魯역) (1986, 技文堂)에서 氏는 末方里寺址가 洞鶴寺址이며 후에 崇福寺로 개칭되었음을 現地에서 찾아진 비석조각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255-257쪽) 이것은 우리 學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지만 하루속히 확인될 필요가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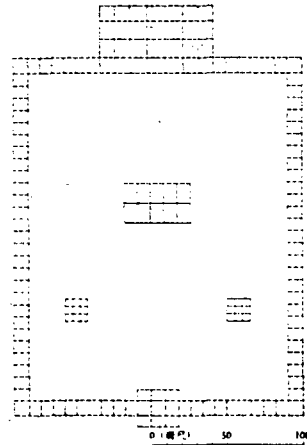


그림2 望德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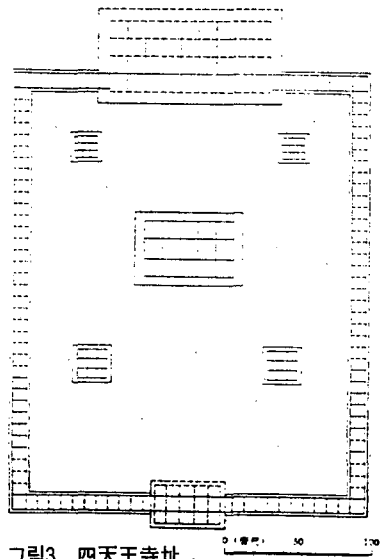


그림3 四天王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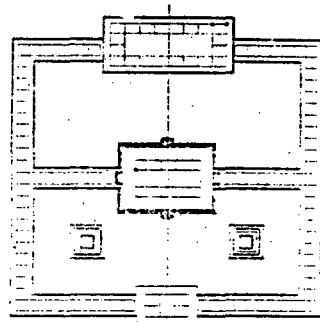


그림4 感恩寺址

望德寺址는 A. D. 680년을 전후하여 세워진 것으로 생각되며<sup>2)</sup> 四天王寺는 文武王 19년(A. D. 679)에 창건되었다.<sup>3)</sup> 이 두개의 寺址는 위치도 서로 인접해있고<sup>4)</sup> 창건연대도 큰 격차가 없다. 望德寺址는 보존상태가 四天王寺址 보다 좋지 않아서 실측자료의 충실성이 떨어지지만 현재로서는 1928년의 조사자료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sup>5)</sup>

感恩寺는 神文王 元年(A. D. 681)에 지어졌으므로 四天王寺보다 2년 후가 된다.<sup>6)</sup> 우리 학계에 의해 발굴보조되었으며 실측자료는 확실하다.<sup>7)</sup>

이상의 세개의 寺址의 연대가 680년을 전후하여 인접해 있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는 다소 불리한 분포상황이기는 하다.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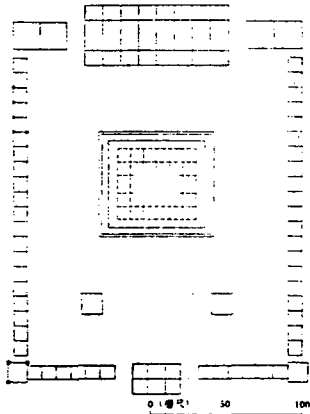


그림5 千軍里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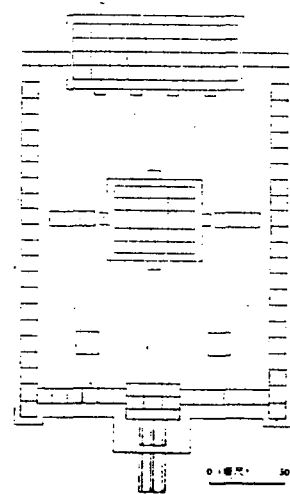


그림6 佛國寺

- 2) 望德寺의 연대 추정에 대하여는 뒤에 자세히 논함.
- 3) 『三國史記』 卷七 “文武王, … …十九年, … …秋八月, 四天王寺成.”
- 4) 두 寺址가 모두 慶州市 排盤洞에 있다. 일제때 東海南部線 철도에 의해 狼山과 그 기슭에 위치했었던 寺址가 兩斷되어 평지화되어 버렸고 지금도 이 두 寺址 사이를 佛國寺가는 고속도로가 관통한다. 이 지역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 5) 이 두 寺址의 실측조사는 처음에 日人 학자인 藤島玄治郎에 의해 실시되었다. 望德寺址가 1928년에 실측되었고 四天王寺가 1929년에 실측되었으며 그 자료가 朝鮮古蹟研究會, 「古蹟調査報告」 大正十一年에 실려있다.
- 6) 『三國遺事』 卷 2 萬波息笛에 “其子神文立, 開耀二年畢.”
- 7) 金載元, 尹武炳 「感恩寺址發掘調査報告書」(乙酉文化社, 1961)

연대가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 배치계획상에서는 어떠한 특성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점을 규명해본다는 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흥미거리가 되기도 한다.

寺名과 創建年代를 확실하지 못하는 寺址가 千軍里寺址이다. 이 寺址도 일제때 조사보조된 자료로서 배치계획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sup>8)</sup>

佛國寺의 창건연대를 8세기 후반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며<sup>9)</sup> 본조사를 위하여는 다행스런 일이다. 다른 4개의 寺址에 비해 중심영역 옆에 極樂殿 일곽이 붙어 있는 점이 他寺址와 다르기는 하지만 중심경내의 배치구조는 정통적 雙塔형식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으므로 비교분석상의 문제는 없다.

- 8) 朝鮮古蹟研究會, 「古蹟調査報告」(1938) 63-80쪽 도면 66-84.
- 9) 佛國寺의 初創은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다. (佛國寺古今創記를 인용하여 韓國佛敎研究院, 『韓國의 寺刹, 佛國寺』 一志社, 1974의 15-19쪽 참조) 그러나 현재 확인되는 배치계획은 751년에 시작되어 774년에 완공했다는 『三國遺事』 卷 5의 기록을 믿어야 할 것이다.

5개 寺址에서의 비교순위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먼저 塔의 재료별로 구분하여 木塔寺刹인 望德寺와 四天王寺의 치수비교를 하였다. 즉 유사점이 많은 쪽을 먼저 비교함으로써 비교치수의 신빙성이 높은 비교의 근거를 먼저 추출해내자는 생각이다. 같은 방식으로 石塔寺刹인 千軍里寺址와 佛國寺를 비교하였고 그후에 木塔寺刹인 四天王寺와 石塔寺刹인 千軍里寺址를 비교하였다. 이것은 四天王寺址의 경우가 望德寺址보다는 值數의 신빙도가 높으며 또 千軍里寺址가 佛國寺보다 시기가 앞서는 例라고 추정하여 木塔에서 石塔으로의 변화과정의 파악에 적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感恩寺址는 石塔寺刹의 초기에 해당하지만 여기서는 직접 비교의 대상으로 처음부터 취급하지 않고 다른 4개의 경우에서의 비교가 된 후에 종합비교의 단계에서 취급하였다. 그것은 感恩寺가 회랑의 종횡비가 이례적으로 다르기(회랑의 폭이 깊이보다 큰 유일한 경우이다) 때문에 대지여건 등의 불가피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또 塔의 材料로 보면 石塔이되 時期的으로는 木塔寺刹쪽에 가까우므로 石·木塔의 상호비교·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기도하다.

4. 望德寺址와 四天王寺址(분석 1)

이 두 寺刹은 창건시기와 창건설화, 그리고 지리적 위치도 인접한 木造雙塔의 대표적 사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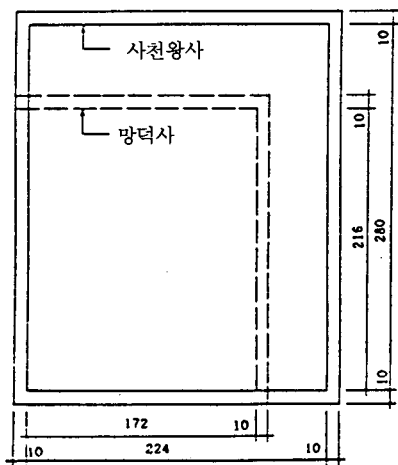


그림7 望德寺와 四天王寺의 回廊

다. 統一新羅 초기의 木造雙塔의 형식과 배치계획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비교분석의 대상이다. 분명한 차이점은 四天王寺가 훨씬 큰 규모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하 각 부위의 비교 논의에서 자세한 수치의 대조 및 분석과정은 많은 지면의 할애가 요구됨으로 각 부위에서의 결론적인 내용만을 간추리기로 한다.

두 寺址에서 회랑의 폭과 깊이의 비는 望德寺가 1 : 1.80, 四天王寺가 1 : 1.79로서 거의 같다. 깊이/폭의 수치가 1.25로서 이것이 당시 회랑계획의 통상적인 계획방법이었다고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雙塔은 四天王寺塔의 1번이 望德寺보다 약 1.4배 정도 크다(21尺/15尺). 양 塔간의 중심거리는 四天王寺塔이 약 1.18배 크다. (130/110尺) 塔 밑 변 길이에 대한 兩塔사이의 거리의 비는 望德寺가 1 : 7.33이며 四天王寺가 1 : 6.19로서 비례적으로는 兩塔間의 거리가 四天王寺에서 다소 가까워졌다. 塔의 크기 역시 회랑의 크기차이에 근사하게 비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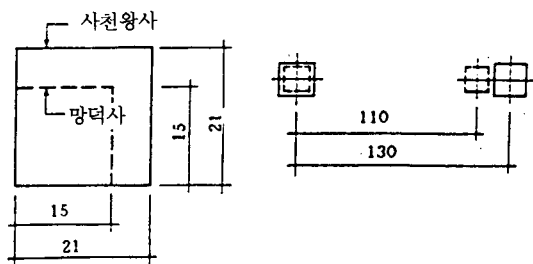


그림8 望德寺와 四天王寺의 塔 및 塔間거리

望德寺 金堂(45×26尺)보다 四天王寺 金堂(60×38尺)이 더 폭에 비해 깊이가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다. (望德寺金堂의 깊이/폭, 1.73, 四天王寺金堂의 깊이/폭, 1.58) 한편 塔이나 회랑의 증감에 비해 四天王寺의 金堂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2280尺<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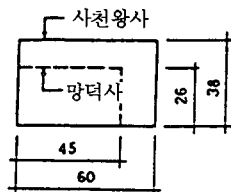


그림9 望德寺와 四天王寺의 金堂

中門과 講堂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난다. 즉 깊이의 변화는 많지 않으나 폭의 길이만 현저하게 四天王寺에서 증가한다. (中門의 종횡비: 望德寺, 1.12, 四天王寺, 1.69, 講堂의 종횡비, 望德寺 1.73, 四天王寺, 2.25) 이것은 寺刹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폭의 증가로서 비례감을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中門의 경우 기능상으로도 깊이의 증가 이유가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된다. 단지 中門과 講堂에서는 金堂과는 반대방향으로 종횡비가 변화한다는 사실도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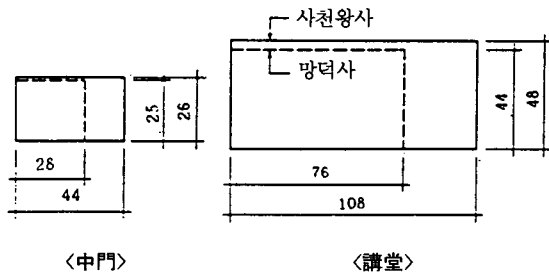


그림10 望德寺와 四天王寺의 中門과 講堂

中門의 중심에서 兩塔의 중심까지의 수직깊이는 四天王寺가 1.48배 望德寺보다 크다. 이 수치는 兩塔間거리 증가가 1.18배인 것에 비하면, 또는 회랑과 다른 구조물의 차이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中門중심에서의 각도로 환산해보면 望德寺가 80.5° 인데 비해 四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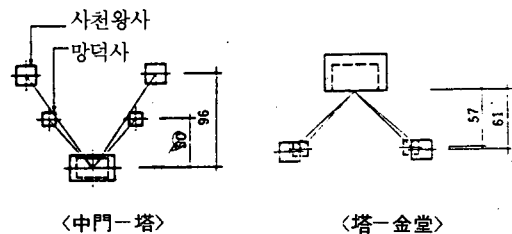


그림11 望德寺와 四天王寺의 中門-塔-金堂 間 거리

王寺에서는 68.2° 로 좁아진다. 반대로 金堂 前面에서 兩塔中心까지의 수직깊이는 四天王寺가

1.07배, 즉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증감변화와 비교하면 오히려 四天王寺에서 축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中門에 들어서면서 兩塔의 조망이 四天王寺에서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中門-金堂-講堂 사이의 거리는 다른 전체적인 변화와 주세를 대략 따르고 있다. 예를들면 中門 중심에서 金堂 前面까지의 수직 깊이는 四天王寺에서 1.29배 (157/122尺)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회랑의 길이 증가(1.30)와 아주 흡사하다. 金堂 後面과 講堂前面사이의 길이는 四天王寺에서 1.25배 증가하여 中門-金堂 사이 거리 증감율보다는 다소 뒤진다. 즉 金堂이 四天王寺에서 약간 講堂 쪽으로 이동하여 金堂 前面부의 공간이 더 넓어졌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四天王寺에서는 金堂의 後面에 鐘樓 및 經樓로 보이는 두 개의 구조물이 추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金堂後面部가 좁아진 것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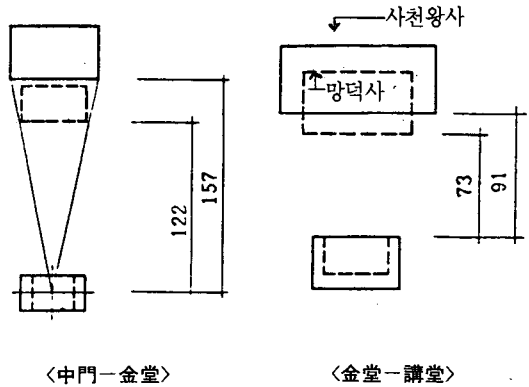


그림12 望德寺와 四天王寺의 中門-金堂-講堂 間 거리

四天王寺가 望德寺보다 커졌으나 각 부위의 치수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비율로 확대되었으므로 부분적으로는 각 부위마다 다른 증감율을 따라 변화된다. 즉 寺域이 축소 또는 확대될때 기계적으로 일정한 비례의 증감원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골격을 따르되 부분적인 치수는 각 사찰 나름대로의 상황과 계획의 원칙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望德寺와 四天王寺 사이에서는 회랑 증감의 폭

이 일정하다는 점, 金堂의 깊이가 四天王寺에서 깊어지며 塔사이의 좁아지고 中門-塔 거리가 길어지고 塔 金堂사이 깊이가 좁아진다는 점, 등이 우선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항들이다.

한편 폭의 변화와 깊이의 변화에 있어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望德寺를 기준으로 했을때 四天王寺의 각 부위의 폭과 깊이의 차이를 별도의 표로 만들어 보면 평균변화율에 폭의 증감율이 깊이의 증감율보다 더 접근한다. 즉 폭의 치수는 전체적인 비례와 시각적인 효과를 더 많이 고려하여 일정한 변화폭을 유지하되 깊이의 길이는 기능과 상황에 따라 좀더 신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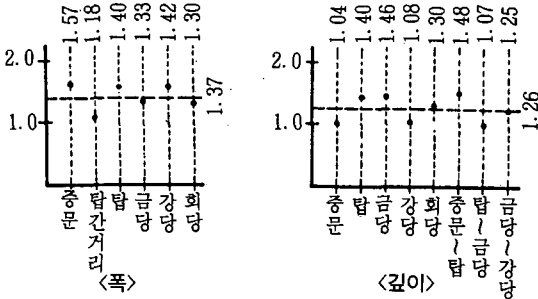


그림13 望德寺를 기준으로 했을때 四天王寺의 폭과 깊이의 변화

### 5. 千軍里寺址와 佛國寺 (분석 2)

千軍里寺址와 佛國寺는 望德寺-四天王寺 관계와는 다소 다르다. 두 寺刹이 모두 石造 雙塔이며 이 塔들이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두 寺刹을 비교해봄으로써 7세기 후반의 木造塔 시기에 비하여 寺刹계획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石塔가람의 배치계획특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지면관계상 望德寺-四天王寺의 비교때보다도 더 설명과 도면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略述해보면 다음과 같다.

회랑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되 佛國寺가 다소 작다. (206×153尺) 종횡비는 千軍里가 1.21, 佛國寺가 1.35로서 佛國寺가 千軍里에 비해 폭이 약간 좁아졌다.

塔의 경우 佛國寺는 釋伽塔을 측정대상으로 삼고 비교해보면 釋伽塔이(9.7×9.7尺) 千軍里塔

(9.9×9.9尺)보다 0.2尺 가량 작다. 塔의 路盤下部까지의 높이는 千軍里(22.7尺)가 釋伽塔(24.2尺)보다 1.5尺가량 작다. 塔間거리는 거의 같다. (千軍里: 87尺 佛國寺 86.5尺)

金堂의 크기 역시 거의 비슷하다. 千軍里(53×47尺)와 佛國寺 金堂(52×46尺)의 차이는 1尺 정도이다. 이 차이는 회랑의 폭이 좁아진 것을 감안하면 축소라기보다 오히려 확대라고 볼 수도 있다.

千軍里寺址의 中門(32×20尺)은 佛國寺(35×17尺)보다 폭은 좁고 깊이가 깊은 편이다. 講堂 역시 千軍里(96×40尺)보다 佛國寺(108×36尺)가 폭이 넓고(+12尺) 깊이는 줄었다(-4尺) 中門과 講堂이 같이 폭은 늘고 깊이가 줄어들음으로서 내부공간의 깊이는 작아지고 회랑의 일부와 같은 성격이 더 강조된 셈이다.

中門과 塔 사이의 수직거리는 千軍里(50尺)가 佛國寺(35尺)보다 15尺이나 길다. 塔間거리는 같으면서 佛國寺에서와 같이 塔이 中門에 가까와지면 視覺上 시야에 쉽게 들어오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져버리는 결과가 된다. 金堂前面에서 塔까지의 수직거리는 千軍里(50尺)보다 佛國寺(55尺)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金堂 앞의 전면공간이 佛國寺의 경우 더 커지는 결과가 된다. 中門-金堂 사이의 수직깊이는 千軍里(100尺)보다 佛國寺(70尺)가 작아진다. 이것은 반대로 金堂-講堂 사이의 거리가 佛國寺(71尺)에서 千軍里(56.4尺)보다 1.26배정도 증가된 것으로서 講堂前面의 공간이 중요해졌거나 사용도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한다.

千軍里寺址과 佛國寺는 서로 배치계획이 상당히 유사하여 크게 두드러진 차이점은 적으나 건물과 같은 구조물에서의 차이보다는 공간상의 확대감이 佛國寺의 경우가 千軍里寺址보다도 더 두드러진다.

### 6. 四天王寺址과 千軍里寺址 (분석 3)

앞서 언급하였듯이 四天王寺址와 千軍里寺址의 비교는 統一新羅 初期의 사찰과 中期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사찰의 비교라는 의미와 함께 木塔寺



刹과 石塔寺刹을 비교한다는 의미도 중요하다.

四天王寺址의 回廊이(220×280尺) 千軍里(174×211.8尺)보다 크다. 그러나 회랑의 從橫比는 四天王寺가 1.25이고 千軍里가 1.21로서 거의 비슷하다. 이것은 앞서 분석된 4개의 寺址에서의 회랑 從橫比가 塔林料의 변화와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비례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준다.

四天王寺塔址의 모서리 礎石間 거리는 21尺으로서 千軍里寺址 石塔의 치수인 7.9尺보다 두배 이상 크다. 이것은 역시 塔의 林料上 불가피했던 점일터지만 石塔으로의 전환 이후 塔의 규모가 木塔일 때보다 전폭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기억되어야 한다.

塔間の 중심거리는 물론 四天王寺(130尺)보다 千軍里寺址(87尺)가 짧다. 이것은 회랑의 축소비 1.29보다도 큰 축소비(1.49)이지만 塔의 규모가 거의 1/4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큰 축소는 아니다. 塔 1번대 塔間거리를 보면 四天王寺가 1:6.19고 千軍里가 1:8.79로서 비례적으로는 石塔으로 바뀌면서 塔間거리가 많이 커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자연히 兩塔사이 및 塔 주위의 空間感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四天王寺의 金堂은 60×38尺이고 가로세로비가 1:1.58이며 千軍里寺址 金堂은 53×47尺이며 가로세로비는 1:1.13이다. 면적도 四天王寺(2280尺<sup>2</sup>)보다 千軍里(2491尺<sup>2</sup>)경우가 크다. 직사각형의 四天王寺 金堂이 千軍里에서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도록 깊이가 길어졌다. 이것은 내부공간의 구성상 중요한 변화로 취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 공간의 사용방식의 차이를 수반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千軍里寺址 金堂의 면적이 四天王寺보다 10%가량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회랑규모가 반대로 40% 축소한 것을 감안해보면 실제로는 150%정도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단히 두드러진 변화로서 塔의 규모가 현격히 줄었다는 점과 대조를 이룬다. 金堂의 중요성 및 金堂 내부공간의 활용도 증가를 대변해 주는 현상으로 보아서 좋을 것이다.

中門과 講堂은 대체로 회랑의 축소비율과 비슷한 비율로 축소되었다. 講堂과 中門의 중횡비도 축소 전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塔과 金堂에서의 큰 변화를 생각할때 거의 변화없이 統一新羅시대를 거쳐서 지켜졌다는 얘기가 된다. 즉 회랑을 비롯한 中門, 講堂의 외곽의 구성방식은 고수되고 내부의 塔과 金堂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컸었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中門-塔 사이의 수직거리가 四天王寺의 76尺에서 千軍里에서는 50尺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中門에서 兩塔을 조망하는 시각이 68.2°에서 82°도로 확대되었다. 이 변화는 千軍里寺址에서 佛國寺에로의 변화에서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서 塔이 점차 中門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은 塔의 중요도가 떨어지면서 進入視角에서 양쪽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나타내며 동시에 金堂前面의 공간이 확대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결국에 兩塔이 회랑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사실과 연관지어 생각할때<sup>10)</sup>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中門-金堂 사이의 거리도 四天王寺에서 157尺이던 것이 千軍里에서 100尺으로 줄었다. 이것 역시 회랑의 규모축소비율에 비교할때 작지않은 변화로서 金堂이 中門쪽으로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 사실은 塔이 中門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며 이 변화 역시 千軍里-佛國寺에서도 찾아졌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中門에 섰을때 塔은 좌우로 비껴서서 잘 안보이게 되어감과 동시에 金堂은 점점더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 塔의 중요도 감소와 金堂의 중요도 증가를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兩塔 중심에서 金堂전면까지의 길이가 四天王寺의 61尺에서 千軍里寺址에서는 50尺으로 18%정도 줄었으나 이것은 회랑규모 축소 및 塔間거리 축소비율에 비하면 오히려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金堂후면에서 講堂 前面까지의 길이

10) 우리나라에는 兩塔이 회랑밖으로 밀려나가게되는 예가 없으나 日本에서는 8세기 寺刹에서 자주 나타난다. 8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東大寺나 大安寺가 그 예이며 이러한 경우는 같은 시기의 中國 唐 佛刹 양식을 반영하므로 韓國의 변화와 관련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 四天王寺의 91尺이던 것이 千軍里에서는 56.4尺으로 줄었다. 이것은 작지않은 축소경향을 보여주지만 千軍里寺址 金堂이 정사각형으로 확대된 점과 千軍里寺址에서의 講堂이 회랑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7. 感恩寺址와 4개 寺址(종합 1)

感恩寺는 시기적으로는 四天王寺와 가깝고 塔의 材料로는 千軍里寺址 및 佛國寺와 가깝다. 感恩寺이후의 모든 사찰이 石塔으로 지어진 것을 볼때 四天王寺와 2년밖에 時差가 없으면서도 한국 石塔寺刹의 시효가 된다고 보겠다. 石塔寺刹이면서 千軍里 및 佛國寺와는 時差가 현격하고 동시에 木塔寺刹과 시기적으로 인접해있다는 사실이 塔材料의 변화와 時間상의 변화사이의 관계를 찾아볼 수 있게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되었듯이 感恩寺는 배치계획이 다른 4개의 寺刹이 보이는 강한 유사성에 비해 너무나 특이한 배치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부위의 치수를 前과 같은 방법으로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비교대상부위를 선별하고 방법상으로도 4개의 寺址와 비교하는 만큼 전체적 추이에서의 차이를 알아보는 쪽으로 해야만한다.

感恩寺의 회랑은 폭188尺×깊이168尺으로 중횡비는 1.21 : 1이다. 다른 寺址들이 장방형으로 깊이가 폭보다 길며 거의 일정한 중횡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때 感恩寺의 경우가 이례적인 것으로서 寺址뒷편에 가파른 산이있고 寺址앞으로 높은 축대를 쌓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비례의 회랑을 만들지 못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11)</sup> 感恩寺址 회랑의 깊이를 예로서 다른 4개 寺址의 평균치(228.5尺)와 비교해 보면 60尺이나

작다. 폭은 평균치 179.8尺보다 8尺가량 더 크다. 회랑내부면적은 佛國寺와 거의 비슷하며 千軍里나 望德寺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으므로 규모 상으로는 보편적인 사찰이면서도 회랑만이 유독 특이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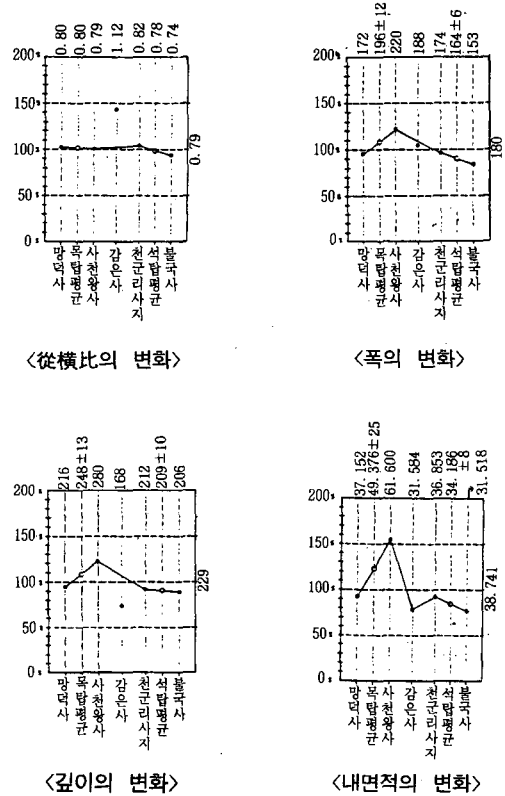


그림14 感恩寺址와 4개 寺址에서의 회랑의 변화

中門은 30尺×15尺으로서 중횡비가 1.88 : 1이다. 다른 寺址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다소 작은편이다. 폭보다도 깊이가 더 작은 편이어서 회랑의 일부인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경향은 講堂에서 더 심해진다. 講堂은 79×29.5尺으로서 다른 寺址에 비해 규모자체가 작으며 특히 깊이가 두드러지게 축소되어 있다. 이것은 앞서 지적되었듯이 地形上 더이상 뒤로 확대하여 깊이가 큰 강당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도 생각되며 동시에 회랑자체가 깊이보다 폭이 길기 때문에 講堂이나 中門이 큰 깊이를 갖는 것이 전체적인 비례에 맞지않기 때문이었을 것으로도 추측해

11) 이 문제는 大天庵과의 관계, 그리고 感恩寺의 특이한 구조와 함께 고려되어 검토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地形上의 이유에서만 회랑의 모양이 이례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다소 설명이 미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과거에는 感恩寺 바로 아래까지 바닷물이 와 있었다는 추정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볼 수 있다. 아무튼 講堂과 中門의 규모와 형태가 회랑을 따라서 같이 다른 寺址에서보다 변형되어있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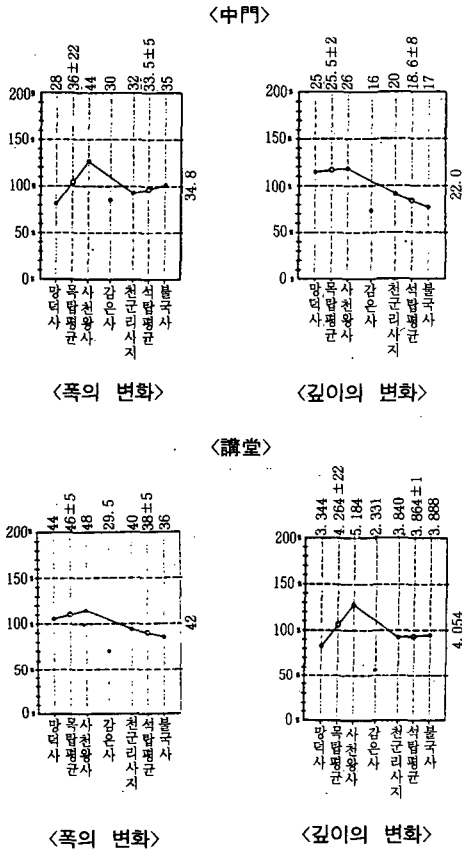


그림15 感恩寺址와 4개 寺址에서의 中門과 講堂의 변화

塔에 있어서는 感恩寺 石塔이 石塔이면서도 木塔에 가까운 크기를 갖고 있을만큼 크다. 이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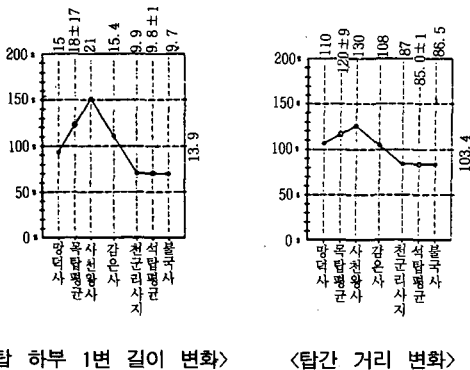


그림16 感恩寺址와 4개 寺址에서의 塔의 변화

木塔이 石塔으로 변하면서도 규모는 종래의 木塔 규모를 유지하려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塔間거리 역시 木塔과 石塔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塔間거리는 특히 望德寺와 유사하다. 感恩寺塔은 石塔이지만 木塔의 규모와 개념에 더 가깝게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비록 회랑은 특이한 형태이지만 塔에 있어서는 木塔寺刹과 石塔寺刹의 가운데에서 양쪽을 이어주는 역사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感恩寺의 金堂은 43.6×25尺으로 望德寺의 金堂과 비슷한 규모를 갖는다. 이것은 면적 뿐만 아니라 종횡비도 비슷하여 石塔寺刹이면서도 木塔 계열의 金堂형식을 보여준다. 感恩寺가 지어졌을 때만하더라도 金堂의 중요성이 다른 石塔寺刹에는 미치지 못했었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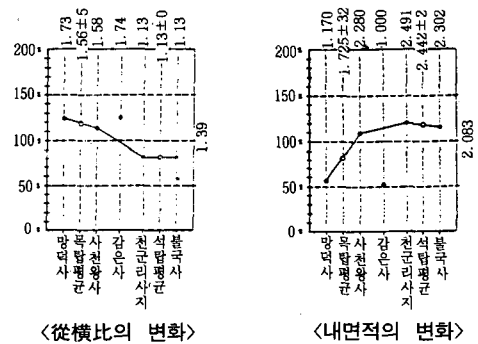


그림17 感恩寺址와 4개 寺址에서의 金堂의 변화

### 8. 건립순서의 문제 (종합 2)

統一新羅 初期에 지어진 寺刹로서 四天王寺 (679)와 感恩寺 (681)의 연대는 확실하다. 문제가 다소 남아있는 경우는 望德寺의 創建年代이다.

望德寺의 창건연대에 대해서는 세가지 서로 다른 근거가 文獻에 기록되어 있다. 「三國遺事」內에는 두가지 다른 기록이 나타난다. 하나는 卷二, 文虎王法敏 條에 따르면 文武王代에 지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sup>12)</sup> 그러나 이 글의 문맥에

12) 「三國遺事」 卷 2 “文處王法敏” ……乃別并新寺於其南

따르자면 四天王寺가 望德寺보다 먼저 지어진 것이 되는데 四天王寺의 건립이 「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라 文武王 十九年(679)이라면 그후 2년 내 세워졌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三國遺事」에 나오는 또하나의 기록은 卷五 感通 眞身受供의 條에 孝昭王 元年(692)에 지었다는 기록이 나온다.<sup>13)</sup> 이것은 다소 연대가 늦어지는 느낌도 있을 뿐더러 文虎王法敏 條에는 望德寺에 관한 기록에 孝昭王때 지어졌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첨가하고 있어서 더욱 신리가 가지 않는다.<sup>14)</sup> 史的 先後관계로 보더라도 孝昭王代까지 연대가 내려가지는 않으리라는 感도 있지만 「三國遺事」 내에 서로 엇갈리며 또 부정하는 내용이 같이 삽입되어 있어서 연대과약을 어렵게 한다.

또 하나의 기록은 「三國史記」 卷八에 神文王 5년(685)에 세웠다는 기록이다.<sup>15)</sup> 이 기록은 같은 책의 四天王寺 건립연대와 가깝게 부합된다는 점에서는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점은 四天王寺나 望德寺가 건립되는 文武王 17년이나 神文王 5년에는 「三國遺事」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은 唐과의 相爭관계가 없었던 때이므로 創建說話와 전연 맞지를 않는다.

이렇듯 望德寺의 창건연대는 상당히 추정기 어려운 문제점이 남아있으며 이와 같이하여 四天王寺의 창건연대 역시 약간의 의문점이 남게 된다. 실제로 望德寺의 창건연대는 資料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16)</sup>

「三國遺事」 文虎王法敏 條의 이야기가 두 寺刹

……일설에는 文武王 11년(671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韓國佛敎研究院 「新羅의 庭寺 I」(韓國의 寺刹3) p. 36

- 13) 「三國遺事」 卷五.에 感通, 眞身受供에 …“孝昭卽位. 始創望德寺.”
- 14) 「三國遺事」 卷二 文虎王法敏 “因名望德寺. (或系孝昭王代. 誤矣.)”
- 15) 「三國史記」 卷八, “神文王五年……夏四月望德寺成”
- 16) 예를들면 藤島씨는 「朝鮮建築史論」에 「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라 神文王 5년으로 보았으며 韓國佛敎研究院에서 펴낸 「韓國의 寺刹」(新羅의 廢寺 I)에서는 文武王 11년으로 적고 있다.

의 건립배경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두 寺刹의 위치관계가 遺事에 기록된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단 史記쪽의 기록과 遺事의 기록을 다 충족시키는 가정을 다시 찾게 되며 그것은 史記에서의 落成年代는 두 절이 완벽하게 공사가 끝난 때를 말하며 그 공사의 시작은 文武王代에 唐과 相爭관계에 있을 때에 시작된 것으로 보면 어떨까 싶다. 예를들어 金堂과 塔을 전쟁중에 먼저 지어놓고 回廊, 講堂 등을 나중에 완성시킨다든가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있기 때문이다.

굳이 두 寺刹사이의 先後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고정시키자면 遺事의 說話나 史記의 연대가 다 부합되도록 四天王寺가 앞서되 약간의 차이만 있다고 보아야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두 寺刹이 약간의 年代差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같은 시기에 工事와 計劃이 진행되었던 例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그것은 680년을 前後한 시기이었다고 보는 편이 안전할 것 같다.

이러한 先後구별과 연대확인의 어려움은 寺刹의 배치계획에서도 나타난다. 두 寺刹의 회랑은 크기는 다르지만 중형비가 같다. 그러나 金堂에서는 望德寺(45×26尺)가 四天王寺(60×38尺)보다 옆으로 긴편이다. 中門과 講堂에서도 四天王寺의 경우가 더 옆으로 폭이 길게 확대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의 분석기준으로 보면 四天王寺의 경우가 더 시대가 뒤선다는 근거도 된다.

그러나 동시에 四天王寺의 塔이 望德寺보다도 中門에서 더 멀어지고 塔間사이 길이가 더 좁아지는 등의 차이는 반대로 四天王寺가 더 앞선다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이와같이 연대과약과 先後관계가 불분명한 점이 文獻史料 뿐만 아니라 실측자료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되풀이된다. 이러한 흐름된 결과는 사실 「三國遺事」에 기록된 이야기가 두 寺刹의 건립배경이라고 보면 오히려 이해가 가는 일이기도 하다.

연대과약은 정확한 연대가 밝혀지는 것만이 중요하기보다는 건립연대에 해당되는 시기의 역사적 상황이 이해되는 점이 오히려 중요할 수도 있다. 앞서 얘기한대로 굳이 순서를 정해놓자면 짧은 기간일망정 四天王寺가 다소 앞설지 모르지만

그 時差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대의 문제는 望德寺와 感恩寺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비록 感恩寺의 회랑은 특이하게 생겼지만 感恩寺의 金堂이 望德寺의 金堂과 거의 같은 규모이며 두 寺刹의 塔間 거리가 거의 같다는 점등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비록 회랑모양은 달라도 거의 비슷한 시기의 작품이며 회랑의 모양은 달라도 전체적 규모는 비슷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결과로서 연대추정의 문제와도 관계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사실 望德寺가 四天王寺보다 늦다면 感恩寺와 거의 같은 시기가 되며 결국 이 세개의 寺刹은 680년을 전후하여 같이 지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또다른 건립연대순서의 문제는 千軍里寺址의 연대 추정이다. 千軍里寺址가 統一新羅 初期의 세 寺刹보다는 연대가 뒤진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佛國寺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갖고 先後관계가 설정될 수 있겠는가 문제가 된다.

회랑에 있어서는 千軍里와 佛國寺가 거의 의미 있는 정도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佛國寺의 회랑 깊이/폭 비율이 다소 커졌으며 이것은 百濟 寺刹의 경우 분명한 後代의 형식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統一新羅에서는 거의 모든 사찰이 비슷한 비례에서의 근소한 차이이므로 문제화하지 않는다.

塔에 있어서는 千軍里 石塔의 下部치수(7.9尺)가 佛國寺(7.7尺)보다 약간 크며 塔間거리도 약간(0.5尺정도) 크다. 이것 역시 별로 의미있는 수치의 변화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論外의 문제로 한다. 단지 이러한 근거들이 두 寺刹의 연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하지 않는 비슷한 시기의 작품이 아닌가하는 추정을 하게 한다.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塔의 수치는 높이이다. 지상에서 路盤 下部까지의 높이가 千軍里 塔이 22.7尺 인데 佛國寺 釋伽塔이 24.2尺으로 1.5尺가량 크다. 塔 밀변의 길이가 비슷한데 높이가 이만큼 차이난다는 것은 釋伽塔이 가늘고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新羅石塔의 일

반적 변화경향으로서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塔의 세장비로 봐서는 千軍里寺址가 佛國寺보다 시대가 앞선다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셈이다.

金堂에서는 千軍里寺址이 53×47尺이며 佛國寺 金堂이 52×46尺으로 거의 비슷하다. 佛國寺의 경우가 1尺정도 작아지지만 이것은 회랑의 폭의 축소를 감안할 때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中門의 경우는 金堂보다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千軍里寺址의(32×20尺) 폭/깊이비가 1.6이며 佛國寺의 경우(35×17尺)가 2.06인 것으로 볼 때 佛國寺가 현저하게 옆으로 길어졌으며 이점 역시 앞서 다른 寺址들의 경우에서 논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佛國寺의 건립연대가 千軍里寺址보다 뒤진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講堂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千軍里의 경우(96×40尺) 폭/깊이비가 2.4일때 佛國寺가 3.0이 된다. 佛國寺 講堂이 현저하게 옆으로 길어졌다. 이 근거도 마찬가지로 佛國寺의 연대가 後代임을 뒷받침한다. 동시에 講堂면적의 증가도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千軍里寺址와 佛國寺는 회랑규모가 비슷하며 건조물의 규모도 크게 차이하지 않으므로 望德寺-四天王寺의 비교보다도 회랑내부에서의 상호거리의 비교가 의미가 있다. 한 가지 두드러진 사실은 中門-塔 사이의 거리이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千軍里寺址의 50尺에서 佛國寺의 35尺으로 15尺이나 줄어들었으며 中門의 중심에서 兩塔이 보이는 視角이 82°에서 102°로 벌어졌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차이이다. 물론 이것은 佛國寺 塔이 金堂에서 멀어지고 中門쪽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어김없이 塔의 중요성 감소와 회랑밖으로 밀려나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점에 있어서도 千軍里寺址의 연대가 빠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金堂後面에서 講堂前面까지의 길이도 佛國寺(71尺)가 千軍里(56.4尺)보다 커지는데 이것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비교에서 千軍里寺址가 佛國寺보다 시대가 앞선다는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차이가 어느정도이겠는지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찾아 말하기가 곤란하며 佛國寺가 751에 착공되

어 774년에 완공되었다고 볼때 千軍里寺址는 8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완공되었을 것이며 무리하게 올려잡아도 8세기 前半의 작품이라고 보아서 틀림없을 것이다.<sup>17)</sup>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는 앞서 논의된 5개의 寺刹 중에서 건립연대가 불확실했던 望德寺와 千軍里寺址의 연대를 어느정도 확인하게 된다. 望德寺는 680년전후로 보아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千軍里寺址는 佛國寺보다는 빨리 8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지어졌거나 8세기 前半의 작품으로 보아서 틀림이 없다.

### 9. 雙塔가람의 變化(結)

지금까지 統一新羅시대의 佛教建築은 雙塔형식이라고하는 형식상의 구분으로서 규정되어왔을뿐 그러한 형식상의 이름이외에 세부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었다. 그러한 세부적인 변화가 파악되지 않으면 같은 형식을 갖고 있는 寺刹들은 전부 동일한 형식상의 묶음으로 처리되어야만 하는 운명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기간 안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변화가 숨어있음이 확인될 때에는 형식 자체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건축사의 해석 방식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것은 첫째로 건축역사에서의 배치라는 것이 고정되어서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만이 아니고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기간도 유동적이고 변화의 흐름선상에 있다고 보아야한다는 견해가 더 타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둘째로 雙塔형식이라고 하는 형식상의 구분이란 것은 오히려 표면적인 것일뿐 그 시대의 佛教建築의 이해는 고정된 형식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 속에 숨어있는 내부적 변화의 성격과 변화를 만드는 동기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놓기 때문이다.

統一新羅시대의 佛教建築도 雙塔가람이라고하

는 형식상의 이름붙이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雙塔가람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형식 속에 끊임없이 그리고 역동적으로 변화해나가는 강한 동기와 흐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진 만큼 그 동기와 흐름의 입장에서 統一新羅시대의 불교건축이 이해되어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本稿에서는 그 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기 위하여 치수비교의 방법을 써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제한된 寺址의 數를 대상으로 해야했지만 그 한계 안에서도 분명한 흐름이 확인된다는 사실은 오히려 고무적이었다. 望德寺址와 千軍里寺址, 그리고 佛國寺가 거의 비슷한 크기의 회랑규모인 것으로 보아서 당시의 가장 전형적인 사찰건축의 규모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볼때 四天王寺址는 같은 비례의 회랑은 취하되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계획이었으며 이에 비하여 感恩寺址는 회랑의 모양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가장 변칙적인 예가 된다. 따라서 四天王寺址는 크기는 달라도 같은 비교의 범위 안에서 파악되어야 했지만 感恩寺址는 雙塔가람 전체에서 하나의 예외적인 경우로 파악되어야 했다.

望德寺와 四天王寺는 木塔가람이었고 그이외는 石塔가람이었다. 그러나 배치계획의 흐름은 塔의 재료에 따른 현저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石塔으로의 변화로해서 塔의 규모가 작아지고 따라서 공간경험상 塔이 갖는 비중이 작아진 것은 확실하되 그 이상의 배치계획상의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石塔으로 바뀐 이후에도 塔은 계속 축소지향적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感恩寺의 塔은 木塔의 성격이 직접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木塔과 石塔의 경계라고하는 전환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感恩寺이후의 石塔은 규모가 작아지고 세장비가 더 가늘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塔과는 반대방향으로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金堂이다. 金堂은 확대되어가는 경향이 분명하며 또 폭에 하여 깊이가 더 길어진다. 즉 정사각형에 가까운 비례로 옮겨간다. 이것은 金堂이 佛像진열위주의 공간에서 内部空間 사용의 측면이 보강되어지는 경향으로 생각된다. 즉 사람이 쓸수

17) 千軍里寺址의 이러한 연대 추정은 新羅石塔에 관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張忠植씨는 그의 「新羅石塔研究」(一志社, 1987)에서 8세기 전반으로 잡았다(129쪽).

있고 쓰기에 편리한 내부공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 연결되므로 차후에 다시論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탑이 축소되며 金堂이 확대된다는 사실은 물론 단순한 크기의 차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統一新羅시대 뿐만아니라 統一新羅前부터 이어져오는 古代佛敎建築의 흐름 속에 면면히 깔려있는 전체적인 배경이고 동기이다. 즉 인도불교의 中國化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자기성부여과정의 문제로 풀이되어야 한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탑의 중요성과 종교적 상징성은 약화되고 반대로 金堂의 중요성과 상징성은 강화되는 과정이 건축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탑과 金堂만큼은 현저하지 않으나 또다른 축소 및 확대경향을 각각 취하는 것은 中門과 講堂이다. 中門은 대체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띄는데 비하여 講堂은 확대되어 간다. 양쪽다 깊이는 얇아지는 반면 폭의 증감이 두드러진다. 中門은 폭이 좁아지고 강당은 폭이 확대됨으로 크기가 커진다.

이것도 中門의 상대적 중요도가 감소하는 반면 講堂의 중요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되어 좋을 것이다. 특히 講堂은 金堂과 함께 그 내부공간은 사람이 쓸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金堂의 확장과 같은 맥락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외부공간의 계획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탑이 시간이갈수록 中門쪽에 가까와 지고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점은 8세기 이후에 탑이 완전히 中門 밖으로 밀려나가는 사실과 같이 이해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그 이동과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탑이 中門쪽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탑만큼 현저하지는 않으나 金堂은 약간 탑쪽으로 이동한다.

마치 金堂이 탑을 앞으로 밀어내고 있는 듯한 현상이 된다. 물론 金堂의 상징적 영향력이 탑의 왜소해가는 세력을 대치하고 있다는 내부적 이유가 건축적으로 표현된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탑의 中門으로의 이동은 자연히 金堂앞의 공간을 더 넓게 확대시킨다. 그리고 金堂의 中門으로의 이동은 講堂 앞의 공간을 더 넓게 확대시킨다. 이러한 前面空間확대의 경향은 물론 그 공간에서 바라보게될 金堂과 講堂의 공간적 분위기와 視覺的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 建築物 자체보다 그 주변의 空間的 처리에 신경이 쓰여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와같은 변화의 경향으로 볼 때 古代 寺刹건축의 계획에서 일정한 기하학적인 원칙이 고수되어 배치계획이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모든 구조물의 위치, 크기, 모양 등은 기하학적 원칙에 의해 고정적으로 지배받기보다는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변화에 건축계획이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기하학적 처리가 적용되었더라도 그것은 一回的이거나 부분적인 필요에 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탑이나 金堂의 규모, 그리고 각 건조물 사이의 거리가 자유롭게 변화함으로 종교적 내부요인의 변화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고정된 기하학적 배치원리를 다른 寺址에서 같이 고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비기하학적인 신축성과 변화에 대한 기민한 공간적 대응방식이 古代佛敎建築의 핵심적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統一新羅의 佛敎建築이 다른 시대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볼때 다소 정체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The Change in the Buddhist Architecture of the Unified Silla Period (668-935)

Kim, Sung Woo

(Younse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ABSTRACT

The development of Buddhist architectures of the Unified Silla period have been generally understood to have paired pagoda instead of one which had been popular until before the unification. Besides the stylistic categorization of paired pagoda system, there had been no further investigation reported concerning whether there was any detailed process of change within the development of paired pagoda style. This paper aims to identify such change inside the development of paired pagoda style, which, externally, seems to be the same pattern of site design maintained throughout the period of Unified Silla that lasted for about three centuries.

Since the temple sites of study are in the same pattern of layout, the method of investigation has to be such that can identify the subtle changes that, in external appearance, are not easily discernible. Hence, this research compared the dimensions of important measurement of five temple sites to be able to clarify the process of minor changes. Among many sites of Silla temples, only five were suitable for the research since detailed measurement were possible through field research or the report of excavation. They are the sites of Sachonwang-sa, Mangduk-sa, site of Kunsuri, and Bulguk-sa.

Although the five sites have the same style of paired pagoda, it is clear that there were consistant flow of change. Even though the motivation of such change were not strong enough to change the site pattern itself, it resulted continuous minor changes such as the



size and location of architectures. The size of image hall, for example, was growing larger and larger as time goes on, while, the size of Pagoda was getting smaller. In the same way, the size of middle gate became smaller while the size of lecture hall became larger, although the rate of change in these cases were not as severe as that of image hall and pagoda. At the same time, pagoda was coming closer to the middle gate leaving larger space in front of the image hall. Such aspect is even more meaningful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agoda, from the 8th century in Japan and China, moved outside of the major precinct. The image hall, too, moved toward the middle gate slightly so that the space in front of the lecture hall became more spacious.

Such changes, of course, were not accidental but they are the same continuous motivation of change that caused the changes before the period of unification. Enlargement of image hall and reduction of pagoda, for example, represent the changing relative importance of religious meaning. Hence, it is evident that one can not easily interpret the development of one style only by categorizing it to be one same style. In the viewpoint of the underlying motivation of change, the fact that one style persis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does not mean there had been no change, but means that it was the time of motivational accumulation, causing minor changes within the same style, to be able to create major change coming after.